

AI 기본법, 인권·안전보호 부족 “AI로 피해 받아도 구제 어려워”

AI 기본법 국회 법사위 통과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빠져
국방·안보 AI 법 적용 배제 논란
졸속 처리 비판... 이용자 권리 미흡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코앞에 뒀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됐던 조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8일 정보인권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법사위의 ‘AI 기본법’ 졸속처리 규탄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해 시민사회가 반대한 AI 기본법안이 별다른 논의없이 졸속 통과했다”며 “AI 기본법안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험한 영향을 받게 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위험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마땅한 의무를 부과해야 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지난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19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통과시킨 위원회 대안이다. 법안은 통과와 동시에 앞서 9월과 11월 형식적인 심사소위 통과로 축소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일었고, 이로 인해 여러 조항이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제되는 조항은 ▲금지된 AI 기술 규정 미기재 ▲고영향(고위험) AI 범주 협소 규정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 책무 이행 강제를 위한 제재 규정 미비 ▲이용자 권리 및 구제방안의 부실성 ▲AI 감독을 위한 독립적 감독기관 부재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방 또는 국



1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 과방위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을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한 것 또한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AI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에 대한 권리와 권리 침해 시의 구제 절차가 없다”며 “현재 법안으로는 AI 채용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청년도, 사회보장 AI로부터 보조금 지급 거부 결정을 받은 시민도, 학력평가 AI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받은 학생도, 의료 AI의 진단 오류로 피해를 입은 환자도 충분한 설명이나 구제를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도입하는 수사 AI의 인권침해 또한 지금 법률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 또한 AI 기본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AI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기술기업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결국 저작권자

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고 결과물에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관해 저작권자가 알 권리를 잃고 정당한 대가 요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하원이 4월 ‘학습 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이 AI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게 하는 사례와 EU가 3월 AI 법을 통해 학습데이터셋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을 참고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문제를 두고 의견이 나뉜 부분도 있다. 언론단체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AI 생성물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넣도록 한 부문에 대해 “환각현상과 편향성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IT 업계 관계자들은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며 맹비판했다. 이어 AI 기본법이 단순 민원과 신고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AI 업계에 대한 사실 조사는 행정 조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 내용”이라며 해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전자, AI 홈으로 스마트 가전 경험 확대

CES 2025서 신제품 대거 공개

삼성전자가 내달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AI 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AI 홈’은 제품에 탑재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가전을 원격으로 모니터링·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삼성전자는 ‘AI 홈’ 기반의 고도화된 연결성을 통해 가사의 수고를 덜어주는 ‘스크린 에브리웨어’ 비전 하에 다양한 스크린 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AI 홈’ 탑재 스크린 가전은 9형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냉장고와 7형 터치스크린을 각각 탑재한 비스포크 세탁기·건조기다.

‘AI 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 사용자는 집안의 연결된 가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맵 뷰’를 통해 연결된 가전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 향후에는 각 제품별 모드 변경, 온도 설정 등을 원격

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활용해 ▲콘텐츠 검색·제어 ▲전화받기 ▲제품 사용 방법 확인 등의 기능을 음성 명령으로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해 앱으로 날씨를 확인하거나, 유튜브·스포티파이 앱으로 영상과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다.

패밀리 허브와 9형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냉장고는 직접 스마트싱스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별도의 스마트싱스 허브를 구매하지 않아도 도어록, 커튼, 블라인드, 조명까지 제어 가능하다.

아울러 ‘삼성 TV 플러스’ 앱이 기본 탑재돼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고, 가전이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를 구분해 인식하는 ‘보이스 ID’ 기능도 도입돼 ▲개인 일정 확인 ▲구글 사진·영상 보기 ▲스크린 글자 크기 조정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피닉스랩, 의약학 생성형 AI 솔루션 런칭

모듈형 검색 증강 생성 적용

SK네트웍스의 투자사인 AI 스타트업 ‘피닉스랩’이 제약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첫 런칭 행사를 열었다.

피닉스랩은 지난 17일 서울시 광진구 위커킬 호텔앤리조트에서 진행된 런칭 행사에서 모듈형 검색 증강 생성(RAG)을 적용한 첫 번째 산업 특화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피닉스랩은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및 역량을 보유한 SK네트웍스와의 협력을 통해 AI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검증, 마켓 테스트를 차례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검증 가능한 생성형 AI 솔루션으로 검색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개인 업무 환경과 기업 문화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목표 아래 지난 9월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SK네트웍스는 글로벌 기술·투자 업계의 전문가 네트워크인 하이코시스템을 바탕으로 AI를 비롯

한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와 협력을 이어오며 피닉스랩의 지원 역할을 맡았다. 피닉스랩의 핵심 기반 아키텍처는 모듈러 RAG로, 기업이 A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거대 언어 모델(LLM)의 단점을 보완한 동시에 검색 증강 생성(RAG)에서 한 단계 더 고도화된 기술이다.

피닉스랩은 제약업계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사의 모듈러 RAG를 적용하면 연구 기획 단계에서 논문 및 데이터 검색 과정을 기존보다 최대 80% 이상 개선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문서 검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케이론을 개발한 것이다.

피닉스랩이 선보인 국내 최초 의약학 특화 생성형 AI 솔루션 ‘케이론’은 ▲제약 업계 특화 ▲윈스톱 검색 ▲의미 기반 검색 ▲워크플로우 자동화 ▲주요 언어 지원 등 5가지 특장점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초고속·초고용량 SSD로 데이터시장 공략

SK하이닉스

QLC 기술 기반 SSD 라인업 강화
AI 데이터센터용 61TB SSD 공개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SSD(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제품군을 개발했다.

SK하이닉스는 18일 서버나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되는 2.5형 SSD인 ‘PS1012 U.2’ 61TB(테라바이트)를 공개했다. SSD는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만드는 데이터 저장장치를 말한다.

PS1012는 최신 PCIe 5세대(Gen5)를 적용해 4세대 기반 제품보다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속도는 32GT/s(초당 기가트랜스퍼)에 달하며, 순차 읽기 성능



SK하이닉스가 개발한 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SSD ‘PS1012 U.2’ /SK하이닉스

은 이전 규격 제품 대비 2배 수준인 13GB/s(초당 기가바이트)다. 또 이 제품은 OCP 2.0 버전을 지원하며, 글로벌 AI 고객들의 여러 데이터센터 서버 장치와 호환성을 높였다.

회사 측은 PS1012의 개발로 균형 잡힌 SS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어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낸드 업계 2위 업체

로, 자회사 솔리다임과 함께 고용량 낸드 기술인 QLC(쿼드레벨셀) 제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솔리다임은 QLC 기반 기업용 SSD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지난달 세계 최대 용량인 122TB의 QLC 기반 기업용 SSD를 선보였다. 이어 SK하이닉스도 QLC 기반 신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신제품 샘플을 연내 글로벌 서버 제조사에 공급해 제품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3분기에는 제품군을 122TB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eSSD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1월 개발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244TB 제품 개발도 함께 진행해 초고용량 데이터센터용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아이폰 12·13도 통화녹음 가능해요”

LGU+ ‘익시오’ 적용 단말 확대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서비스 ‘익시오(iki-O)’ 이용 가능 단말기를 아이폰12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이폰14 이상 단말기에 서만 익시오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12와 아이폰13를 보유한 고객들도 익시오를 사용할 수 있다.

익시오는 ▲보이는 전화 ▲전화 대신 받기 ▲실시간 보이스피싱 ▲통화 녹음 및 요약 등 기능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익시오는 출시 이후 열흘 만에 다운

로드 건수 10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출시 한 달만인 지난 7일 기준 다운로드 건수 20만 건에 육박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사실상 모든 아이폰 사용자가 익시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익시오는 전체 이용 고객 3명 중 2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시오 이용 고객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1.6% 조사됐다. 뒤를 이어 ▲40대 19.4% ▲10대 8.5% ▲50대 이상 8.1%를 차지했다.

/구남영 기자